

언어영역

1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은 모두 2 점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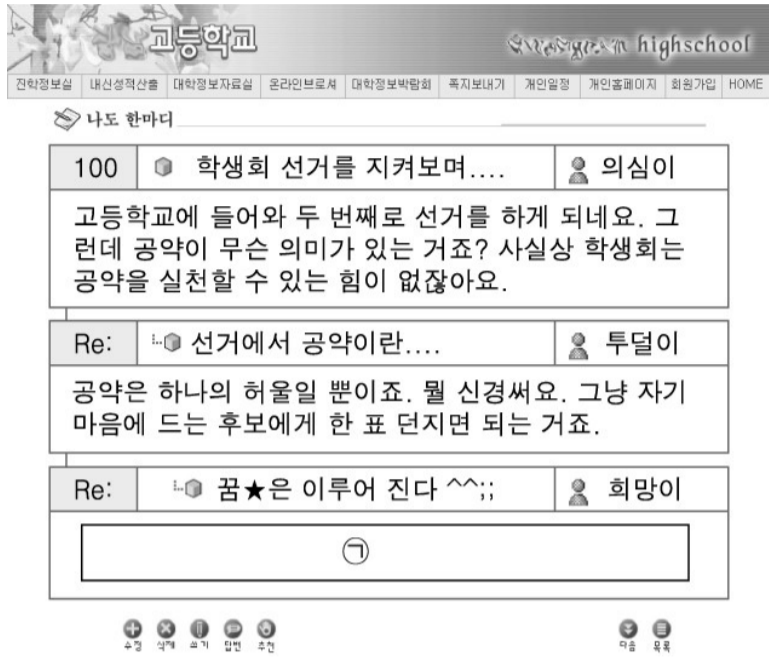
[Redacted area]



사진에 가장 어울리는 문구는?

[Redacted area]

언어영역



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터넷 게임 중독이 성장기 청소년의 인격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소견을 제시한다.

얼마던지의심스러운 회의감지 못한다권력의 시녀와 돈의 노예이고 이념적 환상의 피해자가 된다.

인터넷 게임 중독이 개인에게 주는 피해를 인터넷 게임 중독의 사회적 폐해를 인식시킨다.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게임 자제를 촉구하는 글을 쓴다.

인터넷 게임 중독의 원인을 제시했다 게임을 자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소년 문화 공간 부족이 인터넷 게임에 빠지게 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한다. 청소년의 PC 사용 출입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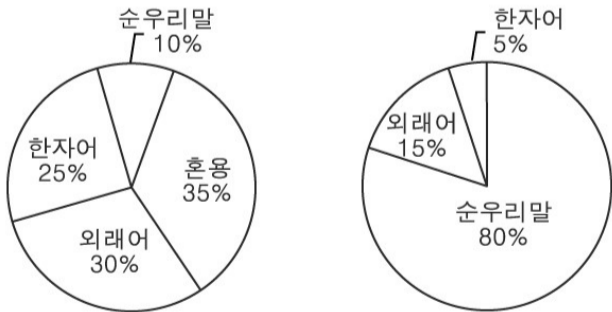
언어영역

경향이 있다.
수 있다.
있다.



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 1] 상호의 어원별 [자료 2] 어떤 말로 상호를 정하는 분석 결과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설문)



[자료 3]

한글날을 맞아 ○○ 대학 국어교육과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간판과 업소의 성격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카페, 레스토랑 등은 외래어 사용 빈도가 타 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고급을 지향하는 업소의 경우에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도 교수 한사랑 박사는 "우리의 의식과 문화는 결코 언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며, 특히 이름은 의식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아름다운 우리말 상호를 살려 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라고 지적했다. 【○○일보, 윤○○기자】

(가) 독(ジ)을 차고

김영랑

내 가슴에 독(ジ)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흠어 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고 위협하고

독(ジ) 안 차고 살아도 머지 않아 너나마주가 버리면
억만 세대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디!' 독은 차서 무엇 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앓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허나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산 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맡긴
신세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막음날 내 외로운 혼(?) 건지기 위하여.

(나) 쉽게 씌어진 시(?)

윤동주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언어영역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다) 일월(?)

유치환

나의 가는 곳
어디나 백일(?)이 없을소냐.

머언 미개(?)적 유풍(?)을 그대로
성신(?)과 더불어 잠자고

비와 바람을 더불어 근심하고
나의 생명과
생명에 속한 것을 열애(?)하되
삼가 애련(?)에 빠지지 않음은
- 그는 치욕(?)임일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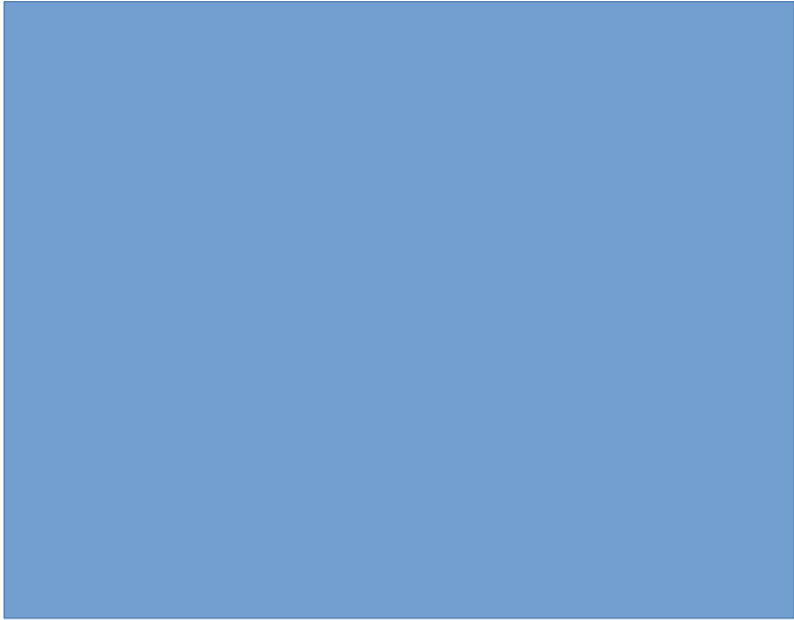
나의 원수와
원수에게 아첨하는 자에겐

가장 옳은 증오를 예비하였나니.



창 밖을 보던 화자의 시선이 방 안으로 향하면서 이 시는 시작된다. 시적 화자는 방 안팎의 풍경을 자신이 처한 현실로 인식하게 되는데, 그러한 시인의 인식은 자신의 내면에 대한 성찰로 이어진다. 한동안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던 화자는 다시 외부 세계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데, 이 지점에서 화자의 태도는 변화를 보인다.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은?



수행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명령의 가짓수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는 단지 그 양적인 한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거기에는 인간의 언어와는 질적으로 다른 차이가 존재한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음성을 분절적인 단위인 음운의 조합으로 인식하지만, 개는 주인의 음색, 음조, 발음이 뭉뚱그려진 상태로 인식한다. 이는 마치 음성 인식이 되는 휴대 전화기와 같다. 음성 인식 휴대 전화기는 ㉠'말'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알아듣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입력된 주인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명령하면 이런 휴대 전화기는 작동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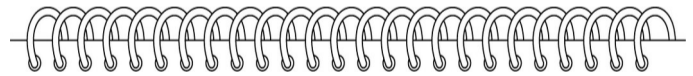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은 동물들이 인지하는 자연계의 소리와는 다르게 언어 음성을 각각 분절된 고유한 음운 단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일 자연계의 사물과 인간의 언어가 일치하는, 즉 필연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면 언어 고유의 체계를 형성하는 분절성은 성립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언어는 사물의 세계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상징 체계이며, 이것은 언어의 분절성이나 자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가 지니는 이러한 독자성, 즉 실재(??)와 현실 세계로부터의 해방은 인간을 무한히 자유롭게 해 준다. 현실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상상이라고 부른다. 언어 기호는 단순히 이미지 연상으로만 이루어지는 막연한 상상을 체계화함으로써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준다. 우리는 상상을 통해서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언어가 실재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를 언어의 창조성이라고 한다. 언어를 이용해서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킬 수도 있고, 새로운 사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는 창조적인 것이다.

동물에게도 의사소통 수단은 있다. 예컨대, 꿀벌은 꿀이 있는 곳을 발견하면 자신의 벌집으로 돌아와 동료 벌들 앞에서 원형이나 8자형으로 비행하는데, 회전하는 수나 회전 반경의 크기 등을 이용하여 꿀이 있는 곳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알린다는 것이 여러 실험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고래가 서로 위치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고받는 음파라든지, 짝짓기 철에 곤충들이 내는 소리 등도 엄연한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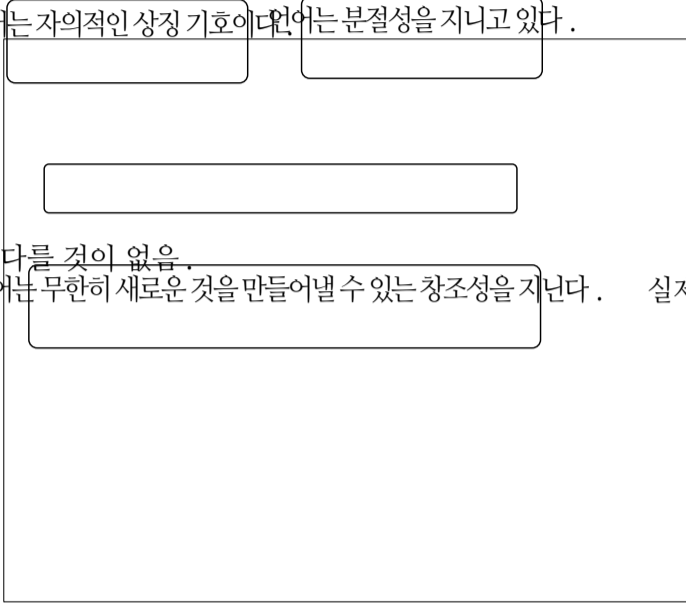
그런데 이들은 모두 인간의 언어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인간의 언어는 이른바 상징적인 기호라고 할 수 있다. 상징이란 형식과 내용이 자의적인 관계에 놓인 기호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나무'라는 단어가 있을 때 그 형식은 [namu]라는 음성이며, 그 내용은 '?'이라는 사물인데, 이 [namu]라는 음성과 '?'이라는 사물의 결합은 필연성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형성된 관습에 의거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것이다.

물론, 우리는 집에서 기르는 개가 인간의 명령을 알아듣고 그것을



언어영역

언어는 자의적인 상징 기호이다. 언어는 분절성을 지니고 있다.



은 경우와 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음.

언어는 무한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성을 지닌다. 실제로 새로운 과학적 이론을 모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몇몇 과학적 원천이 존재하는데, 그 중 하나가 뉴턴의 물리학이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미시 물리적 현상이다.

객관적 관찰과 실험을 중시하는 근대 과학의 특징 때문에 객관적 관찰이 어려운 인간의 추상적 사유와 감정은 과학적 대상에서 배제되고, 그 결과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무시하는 경향을 낳게 되었다. 자연은 하나의 기계에 불과하다는 믿음은, 자연을 인간이 임의로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부조화는 물론이고 생태계의 오염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발생시켰다.

존재하는데, 그 중 하나가 뉴턴의 물리학이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미시 물리적 현상이다. 거기에서는 관찰하는 대상의 특성이 관찰자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객관적인 관찰과 실험이 어려워진다. 카프라 등 신과학 운동가들은 바로 여기에서 새로운 과학적 이론을 모색하였는데, 그 이론의 핵심은 정신과 물질, 인간과 자연이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전체를 이룬다는 유기체적 세계관이다.

근대 과학적 방법의 한계가 밝혀지면서 근대 과학에서는 객관적 관찰이 어렵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던 인간의 사유와 감정이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유기체적 세계관은 자연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함으로써 환경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무엇보다도 근대 과학은 사물과 현상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여전히 특정 분야에서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근대 과학의 이러한 성과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과학적 이론의 가능성만 강조하는 것은 한때 근대 과학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양한 과학 활동들을 무시하면서 또 다른 획일성을 강조하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더구나 과학 기술 문명이 발생시킨 문제들의 원인이 근대 과학의 이론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 ㉠과학 기술을 오용하고 악용하는 인간의 비도덕적이며 무책임한 태도에도 상당 부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

- (가) - 근대 과학의 본질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나) - 근대 과학의 성과와 한계를 대비하여 분석하고 있다.
- (다) - 새로운 과학적 이론이 적용된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 (라) - 새로운 과학적 이론이 가진 의의를 밝히고 있다.
- (마) - 새로운 과학적 이론의 등장에 따라 요구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 규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기계처럼 존재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인간은 이성이라는 탁월한 정신적 능력으로 자연을 구성하는 요소를 찾아내어 그 인과적 법칙을 밝혀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과학 기술 문명은 근대 과학의 성과가 현실에 응용되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 기술 문명은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안겨다 줌과 동시에 심각한 사회 문제를 발생시켰다.

언어영역

칠월(?) 보름에 아으 백중(?) 별이어 두고
 임과 함께 지내고자 원(?)을 비옵나이다.
 아으 동동(ㄷㄷ)다리

팔월(?) 보름은 아으 한가위날이지만
 ㉠임을 모셔 지내야만 오늘이 한가위여라.
 아으 동동(ㄷㄷ)다리

- 작자 미상, <동동(ㄷㄷ)> -

임은 아니 오고 ㉠으스름 달빛에 열 구름 날 속였고나.
 맞초아 밤일세망정 행여 낮이런들 남 우일 뻔하여라.

- 작자 미상의 시조 -

이상 자연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통제하고 조작할 수 있게 되었어.

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연관이 필요합니다. (㉠)

높은 뒀에 올라가니 구름은커니와* 안개는 무슨 일고. 산천(?)이
 어둡거니 일월(?)을 어찌 보며 차라리
 물가에 가 뱃길이나 보자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등정
 된터이고.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렸나니.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임 다히 소식(?)이 더욱
 아득한터이고.



모침(?□)* 찬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반벽(?) 청등(?
 ㄴ)은 늘 위하야 밝았는고. 오르며 내리며 해매며 바니니
 저근덧 역진(?)하여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입을 보니 옥(?)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늣었에라.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사뢰려 하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인들 어이하며 정(?)을 못다하여 목이조차 메어하니
 오던된* 계성(ㅈ?)에 잠은 어찌 깨듯던고. 어와, 허사(?)
 로다. 이 임이 어디 간고. 곁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좃을 뿐이로다. 차라리
 식여디여 낙월(㉡?)이나 되야이서 임 계신 창(?) 안에
 번드시 비치리라.

* 구름은커니와 :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 모침(?□) : 초가집

* 오던된 : 방정맞은

- 정철, <속미인곡> -

돌아보실 입을 적곰 좃노이다.

아으 동동(ㄷㄷ)다리

언어영역

화자와 입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존재한다. 입과의 거리를 좁혀 보려는 화자의 간절한 노력. 여러 장애 요소. 비극적 초월. 화자의 실의와 고뇌 역시 점점 깊어진다.

- 앞의 구절과 대구를 이루도록 할 것
- 구절 내에서는 대조적 기법을 통해 의미를 강조할 것
- 입과의 거리가 드러나도록 할 것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규정하였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국가라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과 국가는 구성원들의 올바른 사회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현대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의 주인이요 수혜자이어야 할 국민들은 거꾸로 국가를 위하여 복종과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소수 권력자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은 주요 정치적 결정 과정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지속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권 재민(?
◆??)은 아직도 ㉠교과서의 한 구절로 남아 있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계속 성장해 왔으며, 정보 통신 기술의 획기적인 발달에 의하여 그 열망은 보다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은 신속하고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민주적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획기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탄탄한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순조롭게 확대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정보화의 전개와 민주주의의 발전이 어떤 관계를 지니는가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대립하고 있다.

낙관론자들은, 기술이 사회적 변화를 주도한다는 기술결정론적 입장에서, 디지털 혁명은 정보의 공개와 분산을 촉진하여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고양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최첨단 정보 통신 기술은 선거에서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쌍방향 통신을 활성화하고, 각종 정책 결정 과정과 관련된 정보의 공유가 신속히 이루어져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높이며, 지역 정보화를 통해 지역 발전이 촉진될 것임을 강조한다.

포함적 정보배타적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하는 능력에서 정보 약자와 정보 강자 간의 차이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힘의 차이와 빈부의 격차는 더 커지게 될 것이며, 사회 계층 간의 정보 격차는 지역적으로 재생산되어 중앙에 대한 지방의 예속화가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국가의 권력 기구들은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동태를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배 관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결국 민주주의는 나락의 길로 빠져들게 될 것임을 이들은 경고한다.

이들 두 주장은 모두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적극적인 관점에서 정보화를 통하여 미래 사회를 더 민주주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되, ㉡정보 통신 기술에 의한 통제 가능성이 예고하고 있는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 만약 우리가 비관론에 빠져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기존의 비민주적 지배 권력자들은 정보 통신 기술을 더욱 악용하려 들 것이며, 이에 대항하는 시민 운동은 대중적 기반을 상실하여 시민 사회는 점차 무기력해지고 말 것이다.

언어영역

도적들, 혼비백산하여 돈짐에 눌러 비척거리다가 넘어지고, 뒷사람들도 차례로 쓰러진다. 뭇빵만 어깨에 걸고는 땅 위에 주저앉아 킁킁거리다. 최씨, 네 발걸음으로 안방으로 도망치려고 할 때, 오른쪽 대문으로 두목이 장검을 빼어들고 뛰어든다.

이 소란통에 안채에서는 강 선달, 정면 사랑방에서는 허생이 급히 나온다. 곳간에서는 역쇠가 허리띠도 매지 못하고, 뛰어나오다가 놀라 두 손을 번쩍 들었으니, 아랫도리 꼴이 말씀이 아니다.

네놈이 그레 나랏돈 십만 냥을 털두 뽑지 않고 통째로 끌꺼했단 말이나? (㉠허생, 이에 대꾸하지 않고 옆치락뒤치락, 돈짐과 씨름하며 찢찢매는 줄개들을 보고, 체구에 맞지 않게 우렁찬 소리로 깔깔 웃는다.)

어디서 이런 것들을 모아 놓구 이걸 밤일이랍시구 허구 있지?

이 외락 땅을 치며 통곡한다. 허생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선다.)

돈짐을 뭇빵 걸어 꿇어진 사람들의 행렬, 곳간에서 대문으로 느릿느릿 움직인다. 어떤 도적은 전대를 진 위에다가 허리띠의 돈꺄미를 여럿씩 찢기 때문에 치여 휘청거리고, 어떤 도적의 전대는 갈라져서 돈이 짜르르 쏟아진다. 이 소리에 선잠이 깬 강 선달의 아내 최씨가 왼편 아래쪽 안채에서 등피를 들고 나오다가, 놀라 집안의 종자란 헬미, 새끼, 손주놈꺼정 뿔뿔이 흩어졌사와요. 자빠진다.

언어영역

- 오영진, <허생전> -

점

이 때, 변산에 수천의 군도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각 지방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수색을 벌였으나 좀처럼 잡히지 않았고, 군도들도 감히 나가 활동을 못 해서 배고프고 곤란한 판이었다. 허생이 군도의 산채를 찾아가서 우두머리를 달래었다.

천 명이 천 냥을 빼앗아 와서 나누면 하나 앞에 얼마씩 돌아가지요?

일 인당 한 냥이지요. / 모두 아내가 있소?

"없소." / "논밭은 있소?"

군도들은 어이없어 웃었다.

땅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놈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둑이 된단 말이요?

정말 그렇다면, 왜 아내를 얻고,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논밭을 갈고 지내려 하지 않는가? 그럼 도둑놈 소리도 안 듣고 살면서, 집에는 부부의 낙이 있을 것이요, 돌아다녀도 잡힐까 걱정을 얹고 길이 의식의 요족을 누릴 텐데.

아니, 왜 바라지 않겠소? 다만 돈이 없어 못 할 뿐이지요.

허생은 웃으며 말했다.

도둑질을 하면서 어찌 돈을 걱정할까? 내가 능히 당신들을 위해서 마련할 수 있소. 내일 바다에 나와 보오. 붉은 깃발을 단 것이 모두 돈을 실은 배이니, 마음대로 가져가구려.

허생이 군도와 언약하고 내려가자, 군도들은 모두 그를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이튿날 군도들이 바닷가에 나가 보았더니, 과연 허생이 삼십 만 냥의 돈을 싣고 온 것이었다. 모두들 대경해서 허생 앞에 줄지어 절했다.

오직 장군의 명령을 따르겠소이다.

개심사의 범종각은 누각을 구성하는 네 개의 기둥 모두에 흰 나무를 그대로 사용해서 지어졌다. 하나도 아니고 네 개가 모두 이렇다 보니 범종각은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심하게 찌그러진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올곧은 나무로 만든 기둥과 조금도 다름없이 널따란 지붕을 거뜬히 받쳐 내고 있다.

프레드 앤드 진저 빌딩을 보면 건물을 받치는 기둥과 더불어 건물 자체도 심하게 찌그러진 모습으로 지어져 있다. 이 건물도 범종각처럼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지만 정밀한 구조 계산에 의해 지어졌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서 있을 수 있다.

해체주의는 정형적 질서를 강조하는 기존의 건축 경향을 현실성이 없는 가식의 세계라고 비판하면서 시작된 일종의 반문명 양식 운동이다. 현실 세계에서는 늘 폭력과 전쟁 그리고 거짓이 난무하여 왔는데도 기존의 건축 양식들은 수천 년간 안정되고 질서 있는 조형 세계를 추구하여 왔다. 해체주의는 직선, 직각, 사각형 등으로 구성되는 기존 건축 세계의 안정과 질서를 비현실적인 위선이라고 거부하며 이러한 위선을 해체하고자 비정형적이고 무질서한 건축 세계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볼 때 범종각과 프레드 앤드 진저 빌딩 사이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두 건물 모두 정형적인 규범에 반대하여 비정형적 건축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 건물의 모습이 유사한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대안을 추구하는 데에서 두 건물은 분명한 차이점을 갖는다. 해체주의 양식에 속하는 프레드 앤드 진저 빌딩은 인간의 현실 세계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그 해답 역시 해체라는 부정적 조형관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반해 범종각은 고뇌로 가득 찬 부정적 현실 세계에 대한 대안을 ㉠자연 속의 완결된 한 생명 단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긍정적 조형관으로 제시하고 있다. 부정을 부정으로 풀려는 서양의 해체주의 건축은 현실 세계의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인간의 손으로 찾으려는 서양 문명 전체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이에 반해 부정을 긍정으로 풀려는 범종각의 조형관은 똑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자연 속에서 찾으려는 한국적 사상에서 기인한다.

해체적 조형관은 서구를 중심으로 1980년대 이후 크게 유행하고 있다. 그런데 ㉠범종각의 조형관은 이러한 1980년대 서구 사회의 고민에 대한 해답을 훨씬 이전에 담고 있었다. 휘고 굽은 못난 곡선이 현실을 대표하는 가장 솔직한 모습일 수 있다는 범종각의 조형관은 합리적이고 인위적인 질서 중심의 서구 사상이 맞닥뜨린 한계에 대한 대안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하루 종일 푸른 산 더운 별에 위 아래로 펼쳐진 밭이며 너른 들에
혹시라도 콩알이 있을 법하니 한 번 주우러 가 볼거나.

이때 장끼 한 마리 당홍대단* 두루마기에 초록궁초* 깃을 달아 흰
동정 씻어 입고 주먹 같은 옥관자에 콩지 깃털 만신 풍채 장부 기상
종을씨고. 까투리의 치장을 불러치면 잔 누비 속저고리 폭폭이 잘게
누벼 위 아래로 고루 갖추어 입고 아홉 아들과 열두 딸을 앞세우고
뒤세우며,

"어서 가자, 바빠 가자! 질편한 너른 들에 줄줄이 퍼져서 너희는 저
골짜기 좁고 우리는 이 골짜기 좁자꾸나. 알알이 콩을 줍게 되면
사람의 공양을 부러워하여 무엇하랴. 하늘이 낸 만물이 모두 저
나름의 녹((d))이 있으니 한 끼의 포식도 제 재수라."

붉은 콩 한 알이 덩그렇게 놓여 있는 것을 장끼가 먼저 보고 눈을
크게 뜨며 말하기를,

"어허, 그 콩 먹음직스럽구나! 하늘이 주신 복을 내 어찌
마다하랴? 내 복이니 어디 먹어 보자."

옆에서 이 모양을 지켜보고 있던 까투리는,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눈 위에 사람 자취가 수상하오. 자세히 살펴보니 입으로 훌훌 불고
비로 싹싹 쓴 흔적이 심히 괴이하니, 제발 덕분 그 콩일랑 먹지
마오."

"자네 말은 미련하기 그지없네. 이 때를 말하자면 동지설달 눈
덮인 겨울이라. 첩첩이 쌓인 눈이 곳곳에 덮여 있어 천산에 나는
새 그쳐 있고, 만경에 사람의 발길이 끊겼는데 사람의 자취가
있을까 보냐?"

까투리도 지지 않고 입을 연다.

지난 밤 꿈이 크게 불길하니 자랑하여 처사하오*."

그러자 장끼가 또 하는 말이,

"내 간밤에 한 꿈을 얻으니 황학(??)을 빗겨 타고, 하늘에 올라가
옥황상제께 문안드리니 상제께서 나를 보시고는 산림 처사를
봉하시고, 만석고(??o)에서 콩 한 섬을 내주셨으니, 오늘 이 콩
하나 그 아니 반가운가? 옛 글에 이르기를 '주린 자 달게 먹고

목마른 자 쉬 마신다.' 하였으니, 어디 한 번 주린 배를 채워
뱉어야지."

그러나 지지 않고 까투리 또 말하기를,

"당신의 꿈은 그리하나 이 내 꿈 해몽해 보면, 어젯밤 이경 초에
첫잠이 들어 꿈을 꾸었는데, 북망산 음지 쪽에 굶은 비 흠뻑리며
맑은 하늘에 쌍무지개가 홀연히 깔이 되어 당신의 머리를 덩겨
베어 내리쳤으니,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죽을 흉몽임에 틀림없으니

에서 사람을 시켜 지척을 정경의 처사하오. 고사를 이용한 표현.

장끼 또한 그대로 있을쏘냐?

"그 꿈 또한 염려 말게. 춘당대 알성과에 문관 장원으로 급제하여
어사화 두 가지를 머리 위에 숙여 꽃고 장안 큰 거리로 왔다갔다할
꿈이로세. 어디 과거에나 힘써 보세나."

까투리가 다시 하는 말이,

"야삼경에 또 한 번 꿈을 꾸니 천근들이 무쇠 가마를 그대 머리에
흠뻑 쓰고 만경창과 깊은 물에 아주 풍덩 빠졌기로, 나 홀로 그
물가에 앉아 대성통곡하였으니, 이거야말로 당신이 죽는 꿈이
아니겠소? 부디 그 콩일랑 먹지 마오."

장끼란 놈 또 하는 말이,

"그 꿈은 더욱 좋을씨고! 명나라가 중흥할 때, 구원병을 청해 오면
이 몸이 대장이 되어 머리 위에 투구 쓰고 압록강 건너가서 중원을
평정하고 승전 대장 될 꿈이로세."

<중략>

장끼 고집 끝끝내 굽히지 아니하니 까투리 할 수 없이 물러났다.
그러자 ㉠장끼란 놈 얼룩 장목* 펼쳐 들고 꾸벅꾸벅 고개짓하며
조춤조춤 콩을 먹으러 들어가는구나. 반달 같은 햇부리로 콩을 짹
찍으니 두 고패 둥그러지며 머리 위에 치는 소리 박랑사중에
저격시황하다가 버금수레 맞히는 듯* 와지끈 푹푹 푸드드득
푸드드득 변통 없이 치었구나.

이 꼴을 본 까투리 기가 막히고 앞이 아득하여,

"저런 광경 당할 줄 몰랐던가, 남자라고 여자 말 잘 들어도 패가(?
||)하고 계집 말 안 들어도 망신하네."

하면서, ㉡위 아래 넓은 자갈밭에 자락 머리 풀어 헤치고 당글당글
딩굴면서 가슴 치고 일어나 앉아 잔디풀을 쥐어뜯어 가며 애통해



하고 두 발을 땅땅 구르면서
성을 무너뜨릴 듯이 대단히

절통해 한다.

아홉 아들 열두 딸과 친구 벗님네들이 불쌍하다 탄식하며 조문
애곡하니 가련공산 낙목천*에 울음 소리뿐이었다.

- <장끼전> -

*당홍대단 : 중국에서 나는 붉은 비단 저고리

*초록궁초 : 옅고 무늬가 둥근 초록색 비단의 한 가지

*자랑하여 처사하오 : 스스로 헤아려 일을 처리하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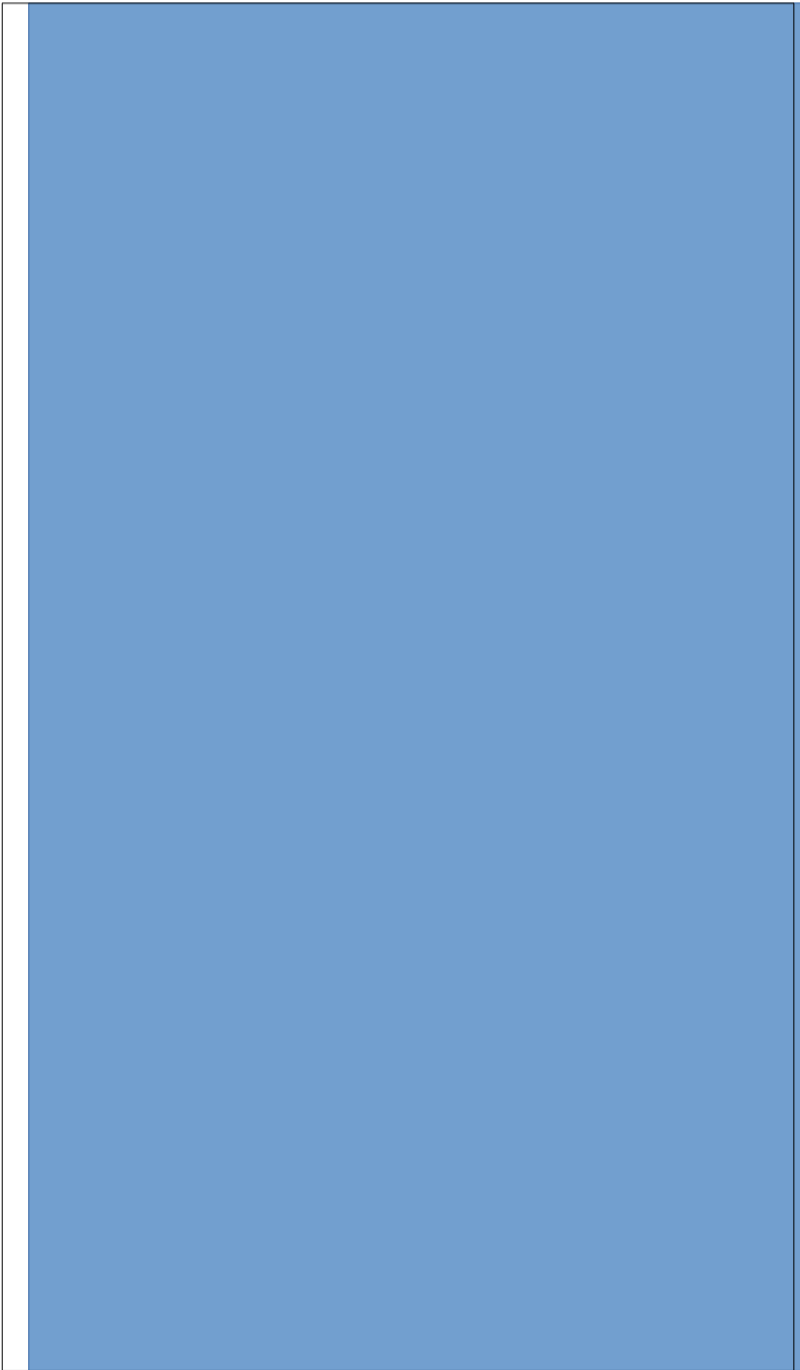
*낙목천 : 나뭇잎 떨어진 빈 하늘

〈앞 부분의 줄거리〉 나는 술집에서 '안'이라는 성씨의 대학원생과 30대 중반의 아저씨를 우연히 만나 동행하게 된다. 아저씨는 자신의 사정과 처지를 하소연하며 함께 있어주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서 거리로 나왔다. 적막한 거리에는 찬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몹시 춥군요."

라고 사내는 우리를 염려한다는 음성으로 말했다.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나는 아저씨에게 말하고 나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숙박계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 사환이 가져다 놓은 자리끼를 마시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썼다.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안이 나를 깨웠다.

"그 양반 역시 죽어 버렸습니다."

안이 내 귀에 입을 대고 그렇게 속삭였다.

"예?"

나는 잠이 깨끗이 깨어버렸다.

"방금 그 방에 들어가 보았는데 역시 죽어 버렸습니다."

"역시……."

나는 말했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선 빨리 도망해 버리는 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이지요?"

"물론 그렇겠죠."

나는 급하게 옷을 주워 입었다. 개미 한 마리가 방바닥을 내 발이 있는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그 개미가 내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얼른 자리를 옮겨 디디었다.

밖의 이른 아침에는 쌀락눈이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빠른 걸음으로 여관에서 떨어져 갔다.

"난 그 사람이 죽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안이 말했다.

"난 짐작도 못했습니다."

라고 나는 사실대로 얘기했다.

"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코트의 깃을 세우며 말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할 수 없지요. 난 짐작도 못했는데……."

내가 말했다.

"짐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내게 물었다.

"씨팔것, 어떻게 합니까? 그 양반 우리더러 어떡하라는 건지……."

혼자 놓아두면 죽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해 본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약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모양이군요."

안은 눈을 맞고 있는 어느 양상한 가로수 밑에서 멈춰다. 나도 그를 따라서 멈춰다. 그가 이상하다는 얼굴로 나에게 물었다.

"김형, 우리는 분명히 스물다섯 살짜리죠?"

"난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두 그건 분명합니다."

그는 고개를 한 번 기웃했다.

"두려워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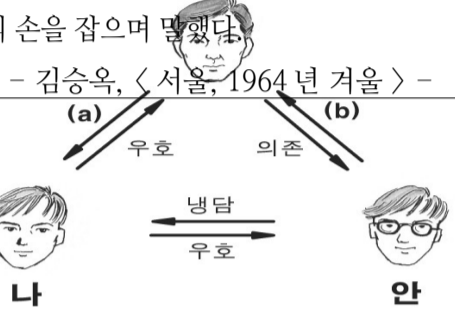
"뭐가요?"

내가 물었다.

그 뭔가가, 그러니까……."

인식영역

그가 한숨 같은 음성으로 말했다.
 "너무 늙어 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린 이제 겨우 스물다섯 살입니다."
 나는 말했다.
 "하여튼……."
 하고 그가 내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자, 여기서 헤어집시다. 재 ~~이제~~ ~~이제~~ 보세요."
 하고 나도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한가, 악한가? 성선설과 성악설은 이 문제에 대해 뚜렷하게 상반된 견해를 제시한다.

문제문제 삼는다.

그런데 성악설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다. 즉 성악설은 '인간을 멸시하는 이론'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성악설이 모든 인간은 악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언제나 비합리적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악과 불의를 위한 이론인 것도 아니다. 모든 사람이 언제나 비이성적이라면 이 세상에 남는 것은 무질서와 혼돈뿐이며, 아무런 철학도, 심지어는 성악설 자체도 펴 수 없을 것이다. ㉠ 성악설은 오히려 이 세상의 악을 물리치기 위해 악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처하자는 데서 나온 것이다.

문제는 성선설과 성악설을 주장하는 이유이다. 성선설, 성악설이라는 인간론은 사회 정치 이론의 핵심 사항과 연관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성선설은 '인간은 선하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집안이든 나라든 모든 사회는 '인간'이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들은 인간 안에서 '선한 요소'를 찾는데, 그 요소는, '도덕적 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인이란 그런 이성과 인격을 함양한 사람이다. 따라서 성선설은 ㉡ 지식인이 국가 사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다시 말해서, 지식인이 관료이어야 하며, 관료는 지식인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반면 성악설은 '인간은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나 국가를

인간이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들은 인간의 바깥에서 국가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을 찾는다. 그것을 순자는 예(?), 한비자는 법과 권력, 묵자는 하느님이라고 하였다. 예나 법은 국가의 제도이며, 이 제도를 운용하는 힘이 권력이다. 그리고 그 제도와 권력을 최종적으로 쥐고 있는 사람이 군주이며 하느님을 대신해서 인간을 통치하는 것도 바로 군주이다. 따라서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군주 이론을 내세운다. 국가의 구성원을 크게 보아 '백성-관료-군주'라고 한다면 성악설은 군주를 옹호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가의 힘은 백성의 생산과 전쟁 능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관료의 착취와 비능률을 제거하고 백성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 군주권과 국가 권력을 강화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성악설은 백성을 옹호하는 이론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관료와 지식인 중심의 성선설과 대립한다.

이렇게 볼 때 성선설과 성악설은 단순히 인간이란 어떠한 인간론을 넘어서서, 누가 권력을 잡아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논의로까지 연결된다. 그것은 사회 정치 이론의 받침돌이며, 현실적으로도 어떤 계층의 권력 장악을 옹호하는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거론되었다. ㉠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대상, 또는 그런 일. ㉡ 여간 큰 문제가 아니다. ㉢ 귀찮은 일이나 말썽. ㉣ 그는 늘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다. ㉤ 어떤 사물과 관련되는 일. ㉥ 이 일은 가치관에 관한 문제이다.

※확인 사항